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0월 6일 주지사 그레이트플랙홀에서 개최된 코리아데이 행사에서 모라 힐리 주지사와 김 드리스콜 부주지사가 참가해 시민협회 임원 및 이사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주지사도 인정한 코리아데이, 이제 주청사의 주요 행사로

주지사 처음으로 한인행사 참여, "해피 코리아데이" 축하
시민협회 주최, 400여 한인, 아시안, 그리고 미국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5 번째 돌을 맞는 시민협회의 코리아데이 행사가 매사추세츠 주청사에 열리는 하나의 주요 행사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리아데이

행사에는 한인들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과 아시안 단체장들을 비롯 40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한인이 주최한 행사에 처음으로 매사

추세츠 주지사와 부주지사가 모두 참석했으며 매사추세츠 주하원 아시안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과 일부 매사추세츠 하원의원들이 참여해 주 정계에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인들의 정계 진출과 미국주류사회 진입을 위한 시민협회 지속적인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면으로 계속

이성윤 교수 김여정 그린 책 <더 시스터> 미국언론 주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북한의 김여정을 그린 책 <더 시스터(The Sister)>가 주목을 받고 있다. 텀즈(Tufts)대 플래처스쿨 이성윤 교수가 쓴 논픽션 <더 시스터>는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주목받는 북한의 실질적 여성 1인자인 김여정을 다뤄 화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으로 북한의 실질적 제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의 양면성을 그려낸 이 책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VOA 등 서방 언론들이 다룰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유명한 스톤빌리지 필름스의 스캇 스타인도르프(Scott Steindorff)감독과 영화 관련계약까지 체결했다.

현재 워싱턴 소재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펠로우로 1년간 근무하고 있는 이성윤 교수는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2017년 한국 동계 올림픽 당시 북한의 김여정이 평창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광찬 전 청와대 실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브루클라인 보스톤한인교회에서 평통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문수 평통회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장진섭 옥타경제인협회장(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공동주최했다

안광찬 전 청와대 실장, 보스턴서 유엔사 필요성 강조

보스톤한인교회서 평통위원과 간담회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은희 간사,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문수)는 보스톤옥타한인경제인협회(회장 장진섭)와 공동으로 안광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예비역 육군소장) 초청 UN 사령부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는 간담회를 지난 10월 5일 개최했다.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 팔러(Parlor)에서 오은희 평통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 실장은 '유엔군 사령부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유엔군 사령부는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재에 관해 설명하고 오늘날 유엔군 사령부가 처한 환경과 적정 규모(Right sizing), 유엔군 사령부의 미래 역할 및 발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 연합군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은 서로 협조하는 관계일 뿐 동일 조직이 아니라고 구분했다.

안광찬 전실장은 "평화를 전쟁 없이 평안한 상태"라고 정의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한반도가 사회주의화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힘에 의한 전쟁 억제가 평화와 경제 발전에 기초"라며 유엔군 사령부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한 유엔군 사령부의 정전협정 효과적 관리로 유사시에 한국

방위를 위한 회원국 전력제공 보장을 통해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이재봉 민주평통 위원과 박찬모 위원의 질의에 안 실장이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강연에 참석한 김우혁 위원은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와 보스톤 옥타한인 경제인협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연 및 간담회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광찬 전실장은 지난 5월 16일 한국-유엔사령부친선협회(KUFA)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과거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국방부 정책실장,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비상기획위원장, 국가위기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보스톤산악회 19차 정기산행 21일

제 19차 정기산행 2023년 10월 21일 Mt Moosilauke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10월 21일 토요일 뉴햄프셔 워렌에 위치한 무실로크 마운틴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왕복 7.2마일의 트레일을 타며 산행시간은 6시간, 난이도는 5척도단계중 3-4로 보통의 난이도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물, 간편 중식, 스틱(Trekking Poles), 방풍의, 우의, 모자, 등이며 회비는 \$20이다. 면으로 된 티셔츠 청바지 등은 착용해서는 안되며 모기약, 장갑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배낭은 뒤로 넘어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집결지는 뉴햄프셔 93번도로 출구 2번 Park&Ride이고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산악회는 "정상에서 바람이 거세고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하니 겨울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따뜻한 자켓을 꼭 준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악회는 산행지는 당일 바뀔 수도 있고 날씨 관계로 취소할 수도 있으니 전날 꼭 웹사이트를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 기타문의 : 전화 617-780-9588 (들꽃향기)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EULSE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eosa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e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이화여대 북미주 총동창회 총회 보스턴에서 개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총동창회 총회가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뉴튼매리어트호텔(Newton Marriott) 호텔에서 열린다.

동창회 총회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대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Back to the Beginning” 이란 주제 아래, 서로의 우정과 이화의 진심 미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과 이명경 총동창회장, 박민정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가해 이화여대의 소식을 전한다.

김지영 보스턴총동창회장은 “이화여대의 뿌리가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의 총회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화학당의 초대 당장인 메리 스크랜튼 여사를 파송한 트레몬트 감리교회가 보스턴에 있으며, 제 6대 당장인 엘리스 아펜젤러의 묘소가 바로 메사추세츠에 있는 웰슬리대학(Wellesley College)이었다.

이화여대의 건물과 웰슬리대학의 캠퍼스가 흡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바로 웰슬리대학과 같은 이화여대가 되길 꿈꾸며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이다.

137년전 이들은 사랑과 기독교 신앙적이 소명을 갖고 조선으로 건너가 교육기회가 없었던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이화학당을 세웠다. 이에 감동한 미국 친구들의 후원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이화여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수많은 이화여대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성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 나눔과 섬김의 유전자를 받은 삶을 살아왔다.”며 “이번 보스턴총회를 통해 우리는 이들의 그 정신을 다시금 기억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더 나은 세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회장은 이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동창회 관련 문의는 김지영 회장(603-674-3415)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동창회 2023년 가을 야유회

(보스턴=보스턴코리아) 백문성, 편집부 = 10월 7일 토요일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 가을 야유회가 10월 7일 토요일 4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호반 둘레길 산책로로 유명한 밀튼 소재 Houghton's Pond Ball Park, Milton, MA에서 개최된 야유회에서 동문들은 반가운 만남의 담소를 나누며, 불고기 바비큐를 준비하여, 한식 부페와 함께 점심 식사를 즐겼다.

노동완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야유회에서는 산우회, 관악회 및 특별 동문소개, 경품권 전달,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

동문으로 보스턴 총영사관의 영사인 김원중 동문도 참석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뉴잉글랜드 지부와 미주 동창회가 지원하는 90학번 이후의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회 관악회 소개에서는 9월 23일 Watertown Arsenal Park에서 80여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가을 야유회가 소개됐다.

김용구 동문은 장수에 관한 강연회에서 일본의 120세 장수 마을을 소개하고, 장수의 비법으로 부지런한 움직임(농촌이기 때문에 밭일 등), 이웃간의 소통, 야채와 생선 위주의 식사 등 3가지를 꼽았다.

경품권은 최 장수 동문인 김덕순 동문(부군 김종순 교수)과, 모정자 동문, 최연소 참여자인 김원중 영사의 아들과, 야유회 40여명 분 점심을 손수 준비하신 최진민 회장 부인에게 전달되었다.

최진민 회장과 관악회 회장 정해원 동문 그리고 여러 동문들의 봉사로 동문들은 바비큐 등을 포함, 도토리묵 등, 다양한 한식을 즐겼다. 동문회는 추후에 연말 정기 총회, 내년 봄 바비큐 야유회를 개최기로 했다.

문의: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최진민 jinchoi52@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영 학교신문 첫 지면 발간

졸업생들과 보조교사들이 한영으로 손수 제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생 및 보조교사로 구성된 학교신문편집부(KSNEAN)가 한글과 영어로 된 학교신문을 지난 10월 7일 처음 지면으로 발간했다.

KSNEAN은 지난 2020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5주년을 맞아 보

조교사회 주관으로 한영 뉴스레터 편집부를 구성하여 eNews를 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KSNEAN 첫 지면 신문 기사 제작은 이해린 편집장(Editor-in-Chief), 노진 부편집장(eNews(ksneanews.wixsite.com)에, 최서경 부편집장(Co-managing

Editor) 그리고 작년 선임기자로 활동했던 문서연, 이주형, 최유나 에디터가, 한영 번역에는 서혜원, 안유진, 최서경 에디터가 참여했다. 노진 부편집장과 최서경 부편집장(Co-managing Editor)이 지면 신문 레이아웃을 담당했다.

남일 교장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문 KSNEAN의 첫 번째 종이 신문 발간을 축하하며 신문 발간을 위해 수고해 준 편집부 박현아 선생

님과 이해린 편집부장 및 편집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2세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매달 첫주 토요일 한국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KSNEAN은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쓰고, 만들어내며, 학교 소식은 물론 한국관련 기사 및 문화 등을 다루고 있는 월간 신문이다.

박현아 지도교사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 읽을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다. 정말 기쁘다. 졸업생들이 (바쁜 와중에)보조교사로 봉사하면서 한영 신문 제작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07 OCTOBER 2023 토요일 SATURDAY



VOL. 01

Since 1975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2023 가을 힘차게 시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학식



편집부원 소개
발행인 / Publisher 남일 교장
Executive Advisor 박현아 교사

KSNEAN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생 및 보조교사들이 만들어가는 한영신문으로 학교 소식은 물론 한국관련 기사 및 문화 등을 다루고 있는 월간 학교 신문입니다.

편집장 / Editor-in-Chief 이해린 (1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KSNEAN의 새 편집장 이해린입니다. 오랜만에 지면으로 출간된 KSNEAN을 통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커뮤니티에 가치 있는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KSNEAN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편집장 / Co-managing Editor 노진 (11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KSNEAN에서 Editor를 맡은 노진입니다. 재미있는 글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학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편집장 / Co-managing Editor 최서경 (11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KSNEAN에서 Editor를 맡은 최서경입니다. 재미있는 글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학도 KSNEAN 잘 부탁드립니다.

Editor 문서연 (11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KSNEAN에서 Editor를 맡고 있는 11학년 문서연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ditor 서혜원 (12학년)
안녕하세요, 동역 Editor를 맡게 된 서혜원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소식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ditor 안유진 (12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Editor를 맡게 된 안유진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번역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뉴스> 정전 70주년 맞아 유매스 보스톤서 유엔사 역사와 미래 논의



유매스 보스톤 평화민주주의개발 센터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스톤 캠퍼스에서 유엔사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를 예측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 예비역 장성들이 연사로 참여해 유엔사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임호영 예비역 장성과 안병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민주주의개발센터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장진섭 박사가 주관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보스톤 남쪽 타운서 곰이 가축 죽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남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타운 핸슨에서 흑곰이 출현 염소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핸슨 경찰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작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스톤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흑곰은 가정집에서 6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매사추세츠 환경 경찰은 집뒤에 위치한 숲에서 죽은 염소를 발견했다. 야생 곰 생물학자인 데이비드와

틀즈 씨는 각 집에 만들어 놓 버드피더가 곰을 민가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모든 곰들은 버드피더로 인해 가정집의 뒷마당으로 가도록 훈련되어 있다. 가정집에 버드피더 등 곰이 좋아할 만한 음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야생 동식물부(MassWildlife)는 곰을 피할 수 있는 팁을 공개했으며 핸슨 경찰은 이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버드피더를 없앤다.

-쓰레기를 반드시 차고 또는 빌딩 밖 쓰레기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야 한다. -동물이 숲 깊숙히 들어가게 놓아 두지 않는다. -가축 사료를 전기 펜스 또는 곰이 열 수 없는 컨테이너에 간직한다. -바비큐 후에는 반드시 그릴을 청소해야 하며 음식물 조각이나 기름이 야드에 흘리지 않도록 한다. -개를 묶어 곰을 쫓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hsb@bostonkorea.com



워싱턴 마운틴에 첫눈, 평시보다 늦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의 단풍이 한창인 10월 8일 워싱턴 마운틴에 첫눈이 내렸다. 뉴잉글랜드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워싱턴 마운틴에 처음으로 쌓이는 눈이 기록됐다. 워싱턴마운틴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눈발이 날렸으나 쌓이지는 않았다. 기상청은 8일 0.3인치의 눈이 내렸다고 확인했다. 다음날인 9일 월요일 낮 최고 온도가 32도를 넘지 않았지만

햇빛으로 인해 일부 쌓인 눈이 녹았다. 일반적으로 워싱턴 마운틴에는 9월에 쌓이는 정도의 첫눈이 기록된다. 10월에는 평균 19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은 기온의 변화로 인해 약간 겨울이 늦게 시작하고 있다. 이번 주 워싱턴 마운틴의 낮 최고 온도는 32도 이하로 예상돼 몇 차례 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2023 Back to the Beginning 보스톤 총회에 초대합니다!

주제: Back to the Beginning
장소: Newton Marriott Hotel
일시: 10월 26일 ~ 29일

총장님과의 만찬: 27일 금 6-9PM (리셉션 5-6PM)
 대만찬: 28일 토 6-9PM (리셉션 5-6PM)
 문의 연락처: 603-674-3415

뉴잉글랜드 동창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 보스톤지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BOSTON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5회 코리아데이, 이제는 주청사의 주요 행사로 자리잡아

▶▶1면에 이어서

모라 힐리 주지사와 김 드리스콜 부주지사는 12시 5분 처음 식을 시작 하자 모습을 드러냈다. 채널 5 리포터 다내 부치의 사회로 연단에 오른 주 지사는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 영광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한미관계와 매 사추세츠 한국 협력, 그리고 관계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특히 한인사 회가 정계, 학계 그리고 소상공인들 까지 여러 분야에서 매사추세츠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말하 고 한인사회가 번영해야 매사추세츠 가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라 힐리 주지사는 한인들 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하고 한인들의 대표가 각종 위 원회, 이사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드리트콜 부주지사는 이어진 연설에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공부하며 점차 많은 매사추세츠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하 고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는 2022년 20억달러에 달하는 큰 무역거래를 했 다” 고 말했다. 또한 부주지사는 지 난 선거에서 한인사회의 많은 도움 을 받았다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 다.

양미아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경혜 전 시민협회장이 코리아데이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코리 아데이 행사를 시민협회 젊은 임원 진들이 지난 7월부터 거의 매주 줌미



6일 주청사에 열린 코리아데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라 힐리 주지사, 양미아 시민협회장, 샘현 주연방정부관계업무 디렉터



코리아데이 행사에서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김재휘 총영사에게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팅을 가지며 준비했다” 2세대 중심 의 임원진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 한 린다 챔피언 부회장의 노력에 감 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린다 부회 장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김재휘 총영사는 “행사를 준비한 양미아 회장과 시민협회 관계자들에 게 감사한다” 고 말하고 그레이트플

랙홀의 방문이 두번째이며 당시 안 내를 하던 분이 코리아데이 행사를 하는 곳으로 소개 했는데 이 아름다 운 장소에서 한인들과 주정부 중요 관계자들이 코리아데이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특히 이런 행 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택 키 쉐인 등 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다” 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또 “윤대통령이 특 별히 매사추세츠를 방문해 정말 깊 은 인상을 받았으며 꼭 다시 방문하 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말했다. 택키 쉐인 주 하원 아시안 코커스의 장은 “주청사는 ‘주민들의 청사’ 로 활용되어야 하며 코리아데이는

‘주민들의 청사’ 로서의 활용도를 잘 보여주는 행사” 라고 말하고 “한인사회가 매사추세츠 사회에 인식 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주 청사에서 개최하는 코리아데이는 아 주 핵심적인 행사” 라고 말했다. 이날 일정이 겹쳐 참여하지 못한 미셸우 보스턴시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코리아데이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는 정재형 관장의 유에스테권도 팀



국악재즈코리아 조미나 대표의 연주 모습

▶▶6면에 이어서

장을 대신해 참여한 샘현 보스톤연방정부관계업무 디렉터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앞에서 인사할 수 있어서 영광” 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딜리오 전 하원의장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 태키첸과 아시아 안 코커스 의원들이 강력하게 코리아데이를 옹호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미셸 우 시장이 시의원시절부터 시민협회와 인연을 맺고 항상 한인 2세 인턴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셸 우 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우 시장이 정말 한인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보스톤시에서는 에드워드 플린 보스톤 시의회 의장이 참여했으며 10

월 6일을 한국의 날로 정한 시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시민협회는 한식뷔페와 떡으로 식사를 준비해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 후 정재형관장이 이끄는 유에스테권도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조미나씨가 가야금과 콘트라베이스가 함께 하는 국악재즈를 연주했다.

시민협회는 1세대 한인들이 뜻을 세우고 2세대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미국주류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교과서적인 해법을 코리아데이 행사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이성운 교수 김여정 그린 책 <더 시스터> 미국언론 주목

▶▶1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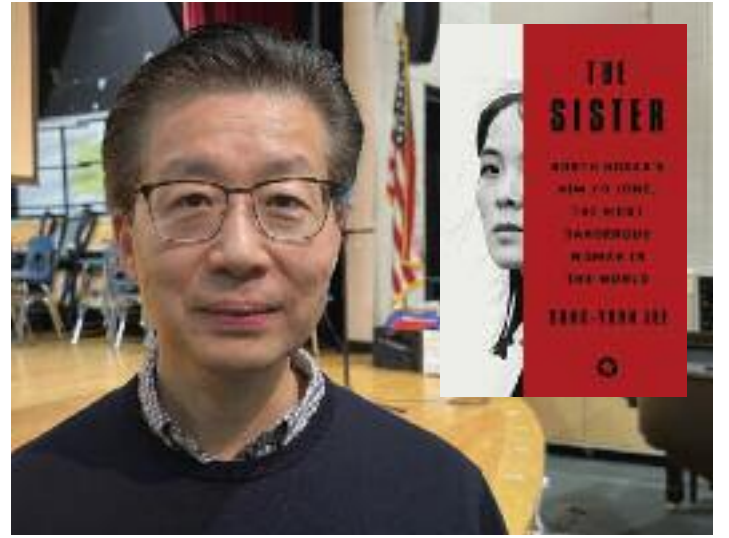
교수에 따르면 이때가 김여정이 세계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때였고 그 이후 김여정은 왕실의 공주처럼 또한 한반도 평화의 사절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보였다. 이성운 교수는 김여정을 그 때부터 주목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결렬됐을 때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망발 하고 있다는 등의 비속어를 사용해 비난을 퍼부었다. 김여정은 '정신이 잘못된 것 아닌가'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이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체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2020년 6월 비난했었다.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뒤 하루만에 이를 폭파했다. 이 교수는 이것이 김여정의 또다른 진면목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책의 제목은 여동생이지만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이라고 쓴 것은 이 교수가 김여정을 평가하고 전체의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이성운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이 갖고 있는 이상반된 이미지는 현대 정치 인물 중에서도 흥미로운 연구주제다. 언젠가 김여정은 또 한국과 미국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의 친오빠보다



팁스(Tufts)대 플레처스쿨 이성운 교수와 그가 쓴 논픽션 <더 시스터> 표지

그가 더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무구한 오관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가 속한 절대 왕정의 외교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병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북한은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폐쇄적인 나라다. 이 교수가 김여정이란 인물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였을까. 이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식 성명과 탈북자 증언, 김여정의 공식 행사를 촬영한 영상 자료를 통해 파악했다” 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교수는 팁스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국학을 수십년간 연구한 북한 전문가이기에도 북한의 3대세습과 김여정의 성격 형성 등을 비교적 쉽게 그릴 수 있었다.

이 교수는 WSJ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유고로 북한의 권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김여정이라 주장한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의 딸 ... 이

후계자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교수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김여정이 김씨 일가의 잔혹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김씨는 자기 신경을 건드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위급 간부들을 처형했고, 희생자의 가족을 수용소에 넣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등 뒤에서 김여정은 ‘외에 굶주린 악마’ 혹은 ‘악녀’ 로 통한다” 며 “청나라 말기 중국을 휘어잡은 서태후와 비견되곤 한다” 고 적었다.

이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이라 규정하는 이유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바로 욕심을 낸 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책이 북한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래를 읽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아이폰 날치기 증가, 분실 도난 시 어떻게 보호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아이폰을 날치기하는 사례가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스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으며 인생전체의 기록과 보관소이기도 하다. 연락처, 이메일, 문자, 카톡, 그리고 각종 은행 및 주식 계좌, 그리고 사진들.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아이폰은 패스코드(passcode) 잠금장치가 있어 전화를 분실해도 정보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폰을 전문으로 훔치는 도둑들은 아이폰 뿐만 아니라 패스코드까지도 훔친다. 이 경우 은행 앱을 통해 현금을 모두 인출했고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

이 패스코드를 통해 고객의 애플 계정 정보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도둑들은 피해자의 애플 계정까지 변경해 버린다. 수년간의 사진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메시지 교환 등이 사라진다. 과연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애플에 저장하는 것이 옳은지 회의하게 된다.

애플사는 “고통을 겪은 고객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아무리 드문 일일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폰과 패스코드를 모두 가져야 가능한 일기에 아주 드물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숫자로 조합된 패스코드는 독특한 약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애플의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애플은 USB동글로 만든 시큐리티 키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패스코드를 사용해 애플ID계정을 바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아이폰 도둑들의 범행 행태 분석

이 도둑은 사람들이 아이폰 패스코드를 누르는 것을 지켜본 후 훔친다.

아이폰과 패스코드를 확보한 이 도둑은 애플 ID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꾼다.

이후 아이폰에서 사인아웃한다. 아이폰을 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지우거나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신뢰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다시 아이폰 리커버리 키를 켜다.

이메일주소와 리커버리시 연락처를 지운다.

애플 ID 계정에서 나간다. 아이폰의 원주인은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이폰 피해자의 돈 빼내기

벤모 등의 결제 앱에 접속하거나 애플페이 사용한다. 애플 캐시를 보내며 사진에서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크레딧카드를 개설한다.

각종 은행 앱 접근

저장된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을 통해 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모든 재정 계좌를 텅 다.

아이폰 분실과 탈취 후 대처

패스코드는 아이폰을 열게 해주며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을 열게도 해준다. 패스코드는 애플 아이디계정까지 바꿀 수 있게 허용한다.

안드로이드 폰의 패스코드와 유사

하지만 도둑들은 대부분 아이폰만을 노린다. 중고기기의 판매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이폰 절도를 100%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현역 의원이 전화를 강탈 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화를 잃어버려도 강도들이 자신의 폰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에 오픈된 장소에서는 스크린의 비밀번호를 입력시 이를 가린다.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교묘하게 패스코드를 알아낸다. 심지어는 아주 멀리서 패스코드로 폰을 여는 것을 녹화하기도 한다.

외부에 나갔을 경우 페이스 ID나 터치 ID를 사용해서 패스코드를 훔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번호를 넣어야 하는 경우 ATM의 비밀번호처럼 가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를 열어서는 안된다.

•패스코드를 어렵게 만든다. 1234는 완전히 금물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패스코드를 6자리로 넣으면 훨씬 훔치기 어려워진다.

만약 넘버와 글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설정의 페이스 ID & Passcode로 가서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패스코드 옵션을 탭하고 커스텀 알파벳 코드(Custom Alphanumeric Code)를 선택한다.

커스텀 알파벳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설정(Settings) > 페이스 ID & 패스코드 (Face ID & Passcode) > 체인지패스코드를 선택. 새로운 패스코드를 선택하고 패스코드 옵션(Passcode Options)을 탭한다. > 커스텀 알파벳 코드(Custom Alphanumeric Code)를 선택해 바꾼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 설정에서 자

동잠금(Auto-Lock)을 가능하면 가장 짧은 30초로 맞춘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보호기능을 넣는다. 벤모, 페이팔, 그리고 캐시앱 등의 앱은 패스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아이폰의 패스코드와 같은 패스코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크린타임에서 패스코드를 넣을 수 있다. 이후 애플 ID 패스워드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제한을 걸 수 있다.

설정(Settings)에서 스크린타임(Screen Time)> 콘텐츠&프라이버시 제한(Content & Privacy Restrictions)을 선택하고 거기서 콘텐츠&프라이버시 제한을 토글(toggle)해 켜다. 만약 스크린타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패스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자신 폰의 패스코드와 다른 패스코드를 선택한다.

스크롤 다운해서 변경 허용(Allow Changes)까지 내린다. 여기서 어카운트 변경(Account Changes)에서 ‘허락하지 않음(Don't Allow)’을 선택한다. 언제든지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스크린타임에 가서 이를 다시 허용으로 바꿔야 한다.

•패스워드매니저 앱을 사용한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키체인 매니저는 편리하지만 여기에 저장한 패스워드들은 패스코드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다. 도둑들은 이것을 이용해 전화기 소유주의 은행 어카운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이폰에 저장해 둔 모든 민감한 패스워드 정보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패스워드업체 1Password 또는 Dashlane 등은 생체정보인증을 이용하기에 좀더 안전하다.

•사진에 저장된 정보도 지워야 한다. 도둑들은 아이폰의 사진을 점검



해 소셜시큐리티번호, 애플크레딧카드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애플 사진에서 패스포트, 운전면허, SSN 등을 검색해 이런 사진들을 지운다. 만약 중요한 문서 등이 있으면 패스워드매니저 업체의 파일 저장에 이를 보관한다.

•아이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 가능하면 빨리 컴퓨터 등을 이용해 아이클라우드닷컴(iCloud.com)에 접속한 다음 기기발견(Find Devices)을 클릭한 후 원격으로 전화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이후 무선전화 업체에 전화하거나 해당 지점을 찾아 전화기 SIM을 즉각 디액티베이트 시킨다. 이래야 도둑들은 확인인 증 코드를 전화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구글, 벤모, 페이팔, 아마존 등의 자신의 어카운트에 들어가 모든 패스워드를 바꾼다.

아이폰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에 애플아이디로 로그인해 원격으로 인증 코드 없이 폰의 모든 정보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아이폰 분실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인생 전체임을 망각한다” 고 한 전문 경찰은 말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전화기에 접근한다면 정말 많은 손실을 가하게 된다” 고 그는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4. 1. 1 ~ 2024. 6. 30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재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보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I. 신청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 9천만원
- 수형인 : 구급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급 :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급)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 4.5천만원 벌금형 : 3천만원

■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도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씨의 5분 요가

살 빠지는 15분 모닝 요가 루틴



“하루 중 요가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라이브 클래스를 듣는 회원들과 유튜브, 인스타 구독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선호하는 시간대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른 아침에 요가하는 것을 좋아해요. 정말 바쁠 때는 간단한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구요.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 밤새 움츠렸던 몸을 시원하게 열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 아침 기상 후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8) 살빠지는 요가 매일 15분 모닝요가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쉽고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Pyramid Stretch : 햄스트링, 종아리 스트레칭

1단계 한다리를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두다리를 천천히 펴줍니다.

2단계 양손은 매트 위에 올려놓거나 닿지 않는다면 발목에 가져가셔도 좋아요.

3단계 허리를 펴고 머물다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숙여 좀더 깊은 스트레칭을 진행해도 됩니다.

4단계 깊게 5회 호흡 후 다음 동작을 준비합니다.



TIP! 좌우다리의 유연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꼭 두 방향 모두 해주시고, 더 뻣뻣한 다리 스트레칭을 좀더 길게 가져가주세요.

2. Side Body Stretch + Twisted Triangle : 허벅지, 옆구리, 어깨, 가슴 스트레칭

1단계 앞의 동작이 끝나면 두 손을 앞에 있는 발 바깥쪽으로 이동해 반대방향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2단계 3회 정도의 호흡 후 중앙으로 돌아와 앞다리와 반대방향의 손을 뻗어 척추를 트위스트 합니다.

3단계 다리를 완전히 펴기 힘들다면 앞다리를 살짝 구부리셔도 좋아요.

4단계 허벅지 사이를 서로 조인 상태에서 깊은 호흡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TIP! 요가 블럭이나 두꺼운 책이 있다면 손 밑에 받치고 진행하면 균형잡기가 좀더 수월할 거예요



3. Russian Twist : 복근 코어 강화

1단계 무릎을 세워 앉아 손을 모으고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바뀌어가며 가볍게 트위스트 해줍니다.

2단계 초보자들은 두 발을 내리고, 도전할 수 있다면 두 발을 바닥에서 떼고 진행해주세요.

3단계 복부를 강하게 수축, 옆구리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4단계 10회 후 잠시 휴식했다가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TIP! 동작을 하다 허리가 아프다면 무리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트위스트 동작만 해주셔도 됩니다.



4. Spiral Twist with Single Leg Stretch : 옆구리 슬리밍, 하체 부종 완화 효과

1단계 한 손으로 반대 발 바깥 쪽으로 잡고 (안 잡히면 발목이나 정강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2단계 나머지 손은 등 뒤 바닥에 올려놓거

나 손을 뒤쪽으로 길게 뻗어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세요.

3단계 시선도 뒤로 뻗은 손을 향해 응시하며 몸의 전면과 허벅지 뒷면의 스트레칭을 느껴봅니다.

4단계 3-5호흡 후, 손과 발을 풀고 바로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TIP! 다리를 뻗어 올리는 게 힘든 분들은, 수건이나 밴드를 사용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또 이 자세에서 허리를 펴기 힘들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척추를 펴주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 오전 11시 (Korean) /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 목: 오후 7시 30분 /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주세요: stadparish@gmail.com /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도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래밍, 변기, 욕조, 전기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보스톤 바이오업계 해고 바람, 일부는 빠르게 재취업

암, 희귀질병, 백신 또는 FDA 관련 업무는 인력 부족 일부는 많아진 바이오 실업자로 인해 높은 경쟁 벌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늘 일손이 부족하던 보스톤 바이오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스톤 바이오업계는 최근 들어 구조조정 또는 폐업 등으로 빠르게 해고를 늘리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수천명의 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이 해고됐다. 특히 올

해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더욱 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최소한 56개 바이오회사가 직원을 해고했거나 폐업했다.

그러나 미국내 바이오 허브인 보스톤인 관계로 상당수의 바이오 전문가들은 빠르게 더 높은 연봉으로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바이오 관계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경쟁으

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브에 따르면 빠른 재취업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전문 분야, 연봉정도, 그리고 주위의 평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빠른 재취업이 보장되는 분야는 암치료약 개발 전문가, 뇌신경 치료약 전문가, 희귀병 치료 전문가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백신 개발 전문가와 FDA 승인 과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나 칼바네즈 씨는 자운스 테라퓨틱에서 지난 4월 해고됐으나 수일만에 보스톤의 한 제약회사의 경영진으로 더 높은 연봉에 재취업했다. 반면 올해 50대 중반의 로버트 재노스체씨는 지난 3월 소노비온 파마에서 근무하다 해고됐으며 이후 아직까지 원하는 직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올해들어 상당수의 바이오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달을 예정이다. 자운스, 프리시 테라퓨틱스, 그리고 사이티어 테라퓨틱스 마젠타 테라퓨틱스, 인터글래스틱스 테라퓨틱스 등이다.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FDA의 승인 여부에 따라 직원 수를 조절하고 있다. 8월 세이지 테라퓨틱스는 산후 우울증 약을 승인 받았으나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울증 질병 치료에는 승인받지 못하자 직원의 40%를 감원했다.

지난해까지 매사추세츠는 계속 바이오업계 인원이 증가했었다. 2022년 바이오 업계 종사자는 114,000명으로 2021년 107,000명에 비해 6.9%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매년 일자리 통계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2023년 집계는 내년 하반기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제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출범회의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가 신뢰와 화합으로
21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 2023년 10월 19일 (목) 오후 6시
- Double Tree Suite by Hilton Hotel, Charles River Ballroom Hall,
400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4

회장 한문수 간사 오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하마스공격, 이란은 미리 알았나...美서 엇갈린 보도

로이터, 당국자 인용 "사전인지한듯" vs NYT "이란, 소식 듣고 놀라" 美,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 견지... "이란개입 증거 아직 안 나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이란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원해 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미국발로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익명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이란은 알았을 것 같다(likely)고 말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란이 하마스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나, 작전을 조율했음을 보여주는 정보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는 "일어날 일(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그 시스템(이란 정부) 내부에서 최소한 일부는 분명하게 알았거나 계획 단계에서 기여했는지에 대해" 미국은 추가 정보를 살펴볼 것이라며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에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핵심 지도자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에 놀랐다는 미국 정보 부문 당국자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이란 정에 부대인 혁명수비대 지도자들과 그에 협력하는 제3국 인사들 간의 회합 등 미국 당국이 모니터링 하는 이란의 움직임에서 이번 사태와 연결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 바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현재까

지 이란의 '공모'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이란의 개입을 예단할 경우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확대와 격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이 보이는 신중함의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

미국 조야에 이스라엘에 대한 초당적 유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란과 하마스를 '한 몸'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이란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10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편을 드는 자들은 지난 2, 3일간 이번 행동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이날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정보당국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태 사흘 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너무 깊이 들어가길 원치 않지만, 경고는 있었다"며 "어느 급에서 이뤄졌는지가 의문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jhcho@yna.co.kr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10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가 이란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 대학가에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학생들은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보인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학가에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성명서가 내걸려 학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캠퍼스내 게시판에는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서가 붙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성명서에서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공격·학살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라며 "한국 청년 학생들도 팔레스타인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 "하마스의 공격은 최근 더 심화하던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성명서가 교내에 붙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외대 4학년 김윤지(23)씨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하마스가 절대적 선은 아닌 상황에서(성명서를) 좀 더 조심스럽게 적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는 지식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곳이니(팔레스타인 지지 의견을) 제지해서

는 안 되지만 그에 대한 학우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김모(20)씨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서방 제국주의를 향한다는 말은 세계정세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정당하다"는 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4학년 구모(23)씨는 "성명서가 붙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지만(하마스가) 민간인을 포로로 잡는 행위를 '정당한 저항'이라 보긴 어렵다"며 "자칫 학생사회 전체 의견으로 비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환 코리안 메디컬 투어
www.junyo.co.kr

좋은사람들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원문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디즈니, 방문객 감소에도 입장료 또 올려...주차료도 인상

"볼거리·즐길거리 추가"...손실 상쇄·향후 투자 위한 조치 분석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가 방문객 감소에도 1년 만에 테마파크의 일부 입장료를 인상했다. 주차료도 올렸다.

디즈니는 11일(현지시간) 미 최대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일부 입장권 가격을 이날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디즈니랜드는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애너하임에 있고 디즈니월드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다.

디즈니는 각각 104달러(13만9천원)와 109달러(14만6천원)인 두 테마파크의 최저가 1일 입장권 가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부터 4년째 동결이다. 그러나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비싼 1일 이용권의 가격은 179달러에서 194달러로 15달러 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일일 이용권의 경우 최대 9% 넘게 올린 지 1년 만이다. 2~5일 이용권 가격도 모두 25~65달러 올렸다. 디즈니월드의 가장 비싼 연간 이용권도 50달러 올라 1천449달러가 됐다. 테마파크 주차료도 25달러에서 5달러 인상됐다. 디즈니는 "우리는 끊임없이 공원

에 새롭고 혁신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추가하고 있다"며 "여러 가격 옵션을 통한 테마파크 방문의 가치는 디즈니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디즈니의 가격 인상은 최근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주요 놀이공원의 대기 시간을 추적하는 업체 투어링 플래스테이터에 따르면 미 독립기념일 공휴일인 지난 7월 4일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 매직킹덤파크의 평균 대기 시간은 27분으로, 4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디즈니랜드는 지난 4일에는 방문객이 줄어들자 어린이 일일 입장권을 한시적으로 내려 최저 50달러에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의 이런 입장료 인상은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고, 향후 투자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디즈니는 지난달 19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테마파크와 크루즈 등 사업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랜도 디즈니 매직 킹덤

모기지 금리 7.67%로 2000년 이후 최고...주택시장 위축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지난주 평균 금리는 전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7.67%를 기록했다. 이는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비해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주택 구입신청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거의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기지 금리가 연동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난주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 당시 대출로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신규 대출에 따른 고금리 부담에 '갈아타기'를 망설이면서 기존 주택 매물이 주는 공급에 타격을 주면서 부동산 가격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신규주택 구매자들에게 금융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 부문에서 신분증처럼 쓴다

노인 1인당 진료비 전체 평균의 2.6배...의원에 지급 건보급여 18.2% 증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금융·공공·의료 부문에서도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라고 통신 3사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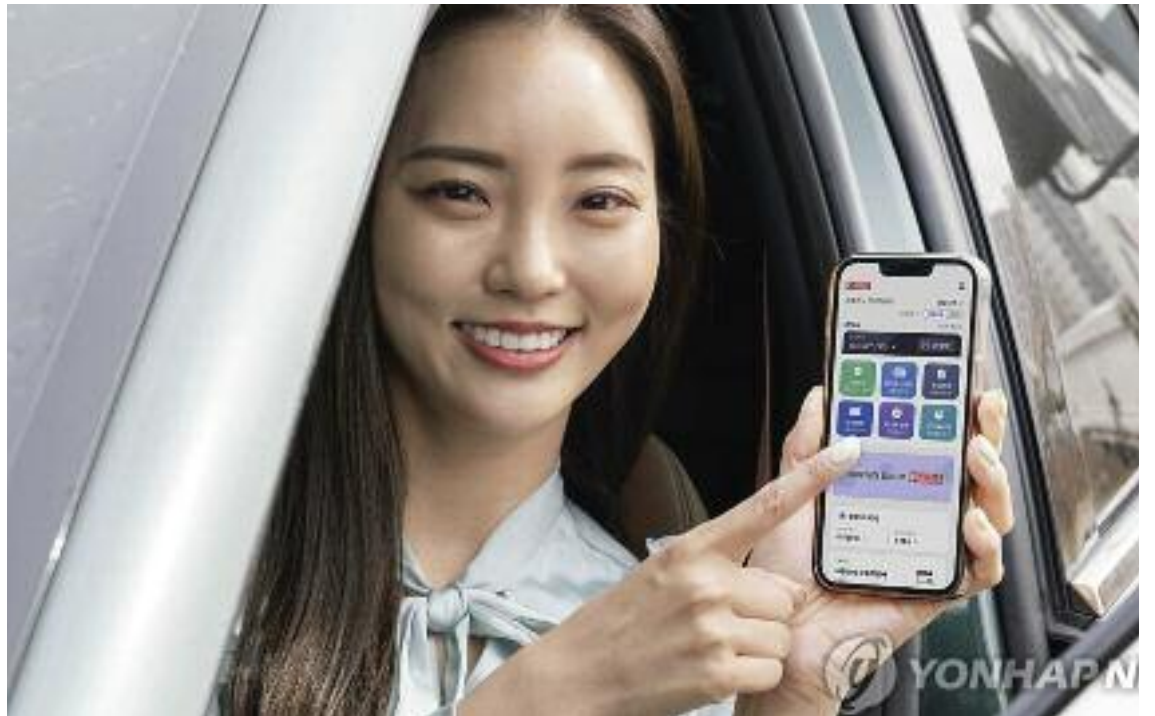
따라서 PASS 앱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편의점·무인 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인증, CGV·롯데시네마 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키보드 사용, SK렌터카[068400] 대여,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바이오 체크인 등록, 통신 3사 대리점 업무, 낚시배 탑승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만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본인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된 PASS 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의 하나로, 2020년 6월 출시돼 530만 명이 사용 중이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PASS 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 3사는 PASS 모바일 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통신 3사(KT, SKT, LGU+)는 지난 9월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인 편의점과 키오스크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통신사들은 예상했다. 이들 기업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ASS 모바일 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PASS에서 3천600만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충격...서울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42명→10명→0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저출산 충격으로 내년에는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는다.

2024년 서울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경쟁률은 그 여파로 올해보다 절반 아래로 하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공립(국

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58명 선발에 643명이 지원, 평균 4.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8.67대 1)보다 절반 아래로 하락한 경쟁률이다. 내년에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으면서 전체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결과다.

올해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10명 선발에 682명이 지원해 6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명 선발에 1천566명이 지원해 37.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학급 수도 줄었고, 이에 내년에는 유치원

교사를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치원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2017년~2022년) 8만8천987명에서 6만6천524명으로 2만명 넘게 줄었다.

2024년도의 각급 경쟁률은 초등학교 4.35대 1, 특수학교(유치원) 4.5대 1, 특수학교(초등) 3.37대 1의 경쟁률

을 보여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립학교는 한국우진학교에서 위탁한 특수학교(초등) 분야 선발이 있었다. 2명 선발에 11명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립학교는 22명 선발에 211명이 지원해 9.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시험은 11월 11일에 실시하며, 시험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sf@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13th - OCT. 19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ULTIMATE KOREAN COMFORT EATS: VEGAN SOYBEAN PASTE STEW

Get a taste of authentic Korean flavors in our vegan version of the beloved fermented soybean paste stew with its earthy and umami-packed essence.
 고기 없이도 깊은 맛을 맛있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H 마트가 소개합니다!



Lago Grape 라고 포도 HALF BOX \$24.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Pineapple 파인애플 EA \$2.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Eye Round 생 흉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4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2.49
Frozen Pork Shoulder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목전지살 (불고기용) LB \$5.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Tilapia Fillet 통통배 틸라피아 필렛 LB \$3.99	Frozen Squid 냉동 오징어 LB \$2.99
TONGTONGBAY Jiri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14.99	Frozen Female Capelin 시사모 LB \$1.99
TONGTONGBAY Small Octopus Sliced 통통배 절단 낙지 1.5 LB/PKG \$11.99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Fillet 연어 필렛 LB \$9.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3.99	H MART SMART CARD ONLY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EA/BOX \$9.99
H MART SMART CARD ONLY PULMUONE Rose Topokki 풀무원 로제 떡볶이 14.8 OZ \$4.99	H MART SMART CARD ONLY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 우유 6.8 FL OZ X 6 EA/PKG \$5.49

ORGANIC FARM Organic Sweet Rice 유기농장 유기농 찰쌀 15 LB \$38.99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4.99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쌀 옐로우 15 LB \$15.99	SUNGGYUNG FOOD Seasoned Sliced Green Laver/Olive & Green Tea Laver 성경 지도표 재래식 파래김/올리브 & 녹차김 0.14 OZ X 20 EA/PKG \$5.99	HAIYO Yaki Sushi Nori Premium Roasted Laver 해오름 구운 스키김 50 SHEETS 4.93 OZ \$5.99
WOORI FOOD Cham Sauce 우리식품 참소스 28.2 FL OZ X 2 BTL/PKG \$7.99	CHUNGJUNGONE O'Food Premium Oyster Sauce 청정원 오'푸드 프리미엄 굴 소스 17.6 FL OZ \$7.99	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VEGETABLE/KIMCHI/FRIED 2.65 LB \$4.99	GOMPYO Korean Pancake/Frying Mix 곰표 튀김/부침 가루 2.2 LB \$2.4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궁중당면 골드 1.5 LB \$2.99
HOMERUN BALL Biscuit 해태 홈런볼 CHOCOLATE 5.15 OZ 2\$6 FOR	WOONGJIN Cocomong Fruit Drinks 웅진 코코몽 드링크 APPLE/GRAPE/STRAWBERRY 6.76 FL OZ 3\$3 FOR	Red Press Container 항토 누름이 김치통 6.5 L/8.5 L/9.5 L \$11.99-13.99 EA	KOTO Electric Rice Cooker 코토 전기밥솥 5 CUPS-\$31.99 10 CUPS-\$37.99 \$23.99 EA	FLORA Urban Check Comforter 플로라 어반체크 차렵이불 190 X 220 CM (QUEEN) \$69.99 EA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팀장 한 준 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lcassyl@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이애나 김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무리 김 578.434.2043 <small>muri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니키 박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피터 박 617.780.7835 <small>depeter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지나 최 578.888.3248 <small>depinachoi@bostonpremierrealty.com</small>	 윤 조 401.935.3397 <small>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시라 파크 617.888.5787 <small>sara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그레이스 김 617.435.7713 <small>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현수 김 617.598.8973 <small>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미사 송 213.303.0397 <small>mira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미키 파크 413.507.1402 <small>miki@bostonpremierrealty.com</small>	 순호 김 617.913.3369 <small>sungho@bostonpremierrealty.com</small>
 최헌진 617.877.0387 <small>he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미영 김 781.850.3412 <small>myeong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은혜숙 781.899.1214 <small>me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장은영 617.315.1162 <small>je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이호준 617.543.5728 <small>jiho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레이철 김 617.852.7489 <small>euiseok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Tammy Woolfolk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Nancy Wang 617.230.9952 <small>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Shirley Zhao 857.231.0316 <small>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small>	 Whyan Yu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Xian Dole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Lu Jiang 240.449.0117 <small>lu@bostonpremierrealty.com</small>
 John Tran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Rebecca Phu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Michael Somma 978.873.0376 <small>mike@bostonpremierrealty.com</small>	 Linda Tu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Jun Wang 649.276.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Lily Wang 617.338.7212 <small>lily@bostonpremierrealty.com</small>
 Crystal Wei 413.2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Angela Zullo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제이코 김 617.598.3409 <small>jeiko@bostonpremierrealty.com</small>	 이강현 857.280.0434 <small>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Anthony Tran 857.288.46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Mira Delangre 413.237.1586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빌라왕 사망후 1년...1천500채 사기에 "결혼·출산, 사치가 됐다"

총피해액 2천312억원 달해...피해자 4인 인터뷰
정부 대책 발표 5차례·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피해 회복 요원
피해자들 "수원서 또 터진 대형 사기...이번엔 땀질처방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였다. 김씨의 죽음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 1천명 이상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다.

애초 김씨 관련 주택은 1천139채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유 주택은 1천500채로 훨씬 많았다. 피해자만 1천244명이었고 피해액은 2천312억원에 달한다.

김씨가 사망한 지 꼭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 대책이 다섯 차례 발표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는 1년 전 그 자리에 멈춰있다. 김씨 사망 후 1년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는 곳과 피해 유형이 각기 다른 피해자 4명을 인터뷰했다.

◇ 30대 근생빌라 피해자... "저출산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MZ세대가 오마카세를 즐긴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꿈이에요"

유모(31)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산다. 2020년 5월, 결혼을 앞둔 6층짜리 빌라 1층에 보증금 1억6천만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 계약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집주인은 김씨로 바뀌었다.

유씨는 김씨가 사망하기 5개월 전 보증금 반환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을 내달라고 하자 김씨는 차라리 집을 사라고 버텼다.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했다.

열린 데 댄친 격. 알고 보니 유씨가 전세를 든 집은 주거용으로 사용 해선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원룸 탈을 씌운 불법 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였다. 김씨 사망 후 백방으로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근생빌라는 정부 지원책과 특별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유씨가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씨는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경매로 집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걱정"이라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았고, 경력자금대출에 이행강제금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근생빌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거액의 이행강

제금(건물 시가표준의 10%)을 내야 한다.

그나마 저리 대환대출을 통해 매월 60만원대였던 전세대출 이자를 10만원대로 낮춰 숨통이 트였다. 지금까지 그가 이용한 유일한 정부 지원책이다. 유씨는 "내년 5월(전세 만기) 터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밝았던 성격은 변했다.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스스로를 발견할 때마다 놀란다. 유씨는 "마음에 분노가 많다 보니 아무 관계 없는 타인에게까지 화가 치밀 때가 있다"면서 "사람 자체를 못 믿게 돼 이제는 친구도 잘 안 만난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됐다.

유씨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니 결혼식에 가기 싫어진다"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그 꿈을 박탈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출산을 보류하게 됐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고 한다. 유씨는 꼭 이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저출산에 몇조원씩 쏟아 부으면 뭐 하나요.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는 결혼, 출산 계획이 다 망 가져 버려요. 전세사기가 결국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 20대 오피스텔 피해자... "2년 전으로 돌아가도 또 당했을 것"

"지금 지식을 갖고 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철빈(29) 씨는 부동산 IT 스타트업에서 일한다. 그런 만큼 전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에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뜯어 봤는데도 당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에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계약할 때 압류·근저당 없는 깨끗한 주택이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도 돼 있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한다기에 믿었다. 마침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 계약 전인 2021년 8월부터 의무화된 터였다. 그런데 집주인 김씨는 차일피일 가입을 미뤘다. 의심스러워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계약할 때 없던 세무서 압류가 딱하니 걸려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63억원 체납 탓이었다.

김씨 사망 후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문제 해결 전면에 섰다. 이씨 역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시 결혼 계획을 미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 호소, 집회에 직면한 정부가 수차례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고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이씨 상황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 무엇보다 김씨의 상속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한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가족은 아무도 없다. 사촌 이내 혈족인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확인이 끝나야 법원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경매 등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사망한 또 다른 '빌라왕'은 가족들의 상속 포기 의사가 빠르게 확인돼 피해 주택이 경매 절차로 넘어갔지만, 김씨의 4순위 상속인은 오래전 해외로 이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절차는 그만큼 늦어진다.

이씨는 "다행히 올해 안으로는 상속 포기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오피스텔은 특히 낙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경매에서 집을 떠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김씨와의 힘겨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또다시 터졌다는 소식이 이씨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씨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카톡방에 이틀 전 300여명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720명으로 2배가 됐다"며 "정부가 더는 미봉책, 땀질식 처방으로 끝낼 게 아니라 종합적인 예방·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피해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 30대 '보증보험 미가입' 빌라 피해자... "한집에 전세 피해자가 셋"

"어떻게 집을 1천채 넘게 가진 사람이 체납이 있는데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해서 집을 사고 전세를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백이슬(34) 씨는 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국회 토론회에서, 집회에서 반복해서 대출·보증 등 잘못된 제도가 전세사기를 잉태시켰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한때 죽을 생각까지 했지만, '혼자 죽느니 얘기는 해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일이다.

백씨가 2020년 11월 인천 서구에 구한 보증금 1억4천800만원짜리 빌라는 김씨 소유였다.

피해를 알아챈 건 전세 만기 전인 지난해 7월이다. 김씨가 소유한 다른 주택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리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우편물을 받고 김씨에게 연락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압류 사실이 맞다면 백씨가 사는 집에도 압류가 들어올 거라는 '예고'까지 했다.

백씨는 "그 이후 별짓을 다 해봤다"며 "그런데 1년 3개월간 딱히 변한 건 없다"고 했다. 지금 백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여기엔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 백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빨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셀프 낙찰'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선 김씨의 상속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이 그나마 버티는데 도움이 됐다.

백씨는 "전세사기가 많은 인천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워낙 많아 경매 법원 업무도 마비가 올 정도라고 들었다"며 "이사 계획이 이미 틀어진 상황에서 경매 낙찰을 기다리며 2년, 3년을 더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파산 관리인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집을 넘겨받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는 동안 백씨 가족 중에서 또 다른 전세 피해자가 나왔다. 사촌오

빠와 사돈댁이 피해를 봤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은 포기했다. 어서 결혼하라고 밀어붙였던 백씨 어머니도 이제 '너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앞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며 이해해 준다고 했다.

그는 "저야 선수위 임차인이라 길 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빚만 있는 채 쫓겨나게 된 피해자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느냐"면서 "언제 돈을 벌고 대출을 갚아 다시 '0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 20대 '보증보험 가입' 빌라 피해자... "빨리 댄을 생각 많았으면"

"저한테 전세사기 빌라를 소개한 분양팀은 '빌라왕 사건'이 매일 같이 언론 보도 될 때도 태연하게 수원에 서 활동 중이었어요. 새로운 임차인 몰래해서 똑같은 사기 벌이는 거죠. 앞으로 터질 전세사기가 얼마나 더 많을까요?" 배소현(28) 씨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길 즐기는 헤어 디자이너였다. 2020년 10월, 신혼집으로 경기 수원 장안구에 구한 보증금 2억5천400만원짜리 신축 빌라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빌라 집주인은 전세계약 직후 김씨로 바뀌었고, 계약 만료 직전 김씨가 숨졌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전세금을 금방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사망한 김씨 피해자들에게 첫 단계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당사자가 사라져 모든 절차가 중단돼버렸다. 보증보험이 '확실한 안전판'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법적 상속인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밟은 끝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지난 2월 힘겹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상속대위등기에 든 비용 700만원은 배씨 부담이었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골프와 인생 7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9번홀 : 골프 그리고 경쟁
 흔히들 골퍼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들 한다. 아마도 축구, 농구, 야구 등 다른 운동처럼 상대가 보내온 볼에 반응하는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자신만의 볼을 온전히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는 운동이기에 그런가 보다. 또한 골퍼는 "신사의 운동"이라고들 한다. 이는 다른 운동경기와 다르게 심판이 반칙 휘슬을 불지 않더라도 자신의 타수를 벌타와 함께 자기 스스로 거짓없이 카운트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골프도 상대가 존재하는 엄연한 운동경기이다. 물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경기 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없다면 영흥도 신도 안나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골퍼에도 항상 경쟁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운동보다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은 물론 상대방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운동이다.

골프 전문가도 아니니 어설픈 이론은 접어치고 나의 아홉번째 홀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이번 홀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다.

프로골퍼들은 어마어마한 상금을 놓고 경쟁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소위 내기를 통해 경쟁관계를 형성한다. 대부분은 골프 후 저녁 내기 정도지만 가끔은 아주 친한 친구들의 경우에 한해서 돈을 걸고 피터지게 경쟁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평소 감춰져 있던 친구들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나 역시 나의 성격을 가감없이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 얼굴에 한꺼풀 덮혀있던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다.

어쩌던... 오늘은 친구들이 한달에 한번 모여 함께 라운딩을 즐기는 마지막주 토요일이다. 대학동창넷이 모이니 이놈 저놈 아침부터

걸쭉한 욕설이 오고간다. 옆에서 지켜보던 캐디가 한마디 던진다. "친구들 맞아요?" 라운딩 시작전부터 기선제압용 욕설이 좀 과했나 보다. ㅎㅎ 친구들과 라운딩하기 전에 언제나 핸디 문제로 설왕설래 한다. "야임마 너 핸디 좀 내려 이게 어디서 사기치고 그래", "야너나 사기치지 마" 서로의 핸디 조정이 일단락 나아만 라운딩이 시작된다.

참고로 골프에서 핸디는 규정타수가 72일 경우 자신의 평균타수에서 규정타수를 뺀 수로 결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 80타 정도 치는 경우 80-72=8 즉 싱글핸디 (핸디가 한자릿수라는 의미)로 아마추어로서는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내 경우 90대 초반 약 95타에서 95타 정도 치니 평균타수를 92 정도 잡고 92-72=20 즉 내 핸디는 20정도 보기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보통 100타 이상 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핸디가 28이다. 120개를 친다 해서 핸디가 48일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무조건 핸디는 28이다. 마치 당구에서 30이하는 없듯이... 그리고 한국에서 120타 정도 치면서 골프장 나오면 캐디한테 눈총 엄청 받는다. 한마디로 출입금지다. ㅎㅎ

골프에 대해 쥐빨도 모르면서 핸디에 대해 운운한건 친구들과의 내기 시 공정한(이게 공정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위해 핸디만큼 돈을 미리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핸디에 대한 조정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다시 말해 타당 천원짜리를 친다면 핸디 8인 친구가 핸디 20인 나에게 만이천원을 미리 주고 나는 핸디 28인 친구에게 8천원을 주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욕설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핸디 조정이 끝나고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티박스에 올라선다. 크던 작던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뻥 들어간다. 사실 그날 경쟁에서

승리해 돈을 딴 친구가 승리 기념으로 거하게 저녁을 쓰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래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긴장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하여튼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니 초구가 잘 맞을리 만무... 공이 옆으로 휘면서 수풀(러프 rough) 속으로 들어간다. 다행히 OB('Out of Bounds'의 약자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의 경계 밖이라는 의미, 이 경우 1벌타 후 전위치로 이동 세번째 샷을 친다. 따라서 세컨샷은 4타짜가 된다.)는 아니다. 하지만 세컨샷을 제대로 칠 수 없는 상황이다. 친구들이 피식 웃는다. 매너 없는 놈은 박수까지 친다.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라운딩을 할 경우 이런짓 하면 안된다. 매너 없는 놈으로 낙인 찍혀 골프계에서 퇴출 당할지 모른다. ㅎㅎ)

수풀로 들어가 공을 찾는다. 내 공이 안보인다. 정신없이 찾는다. 공을 찾지 못하면 2벌타. (원래 로스트볼은 1벌타 후 바로 전 위치로 돌아가 다시 치는것이 룰이지만 아마추어의 경우 골프 진행상 공을 잃어버린 지점에서 2벌타를 먹고 볼을 드롭하여 치게된다.)

자! 이제부터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5분이든 10분이든 끝까지 공을 찾는 사람(규정상 5분 이내에 못 찾으면 로스트볼로 처리된다), 다른 플레이어에게 민폐 끼치지 않게 빨리 포기하고 벌타 먹고 공을 드롭하여 치는 사람, 쓸쩍 다른 공을 놓거나 남이 잃어버린 공을 자기 공이라 우기며 벌타 안먹으려고 사기치는 사람 등등. 그 플레이어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여곡절 속에 공을 찾았다. 벌타는 없다. 하지만 나무 사이로 공을 기가막히게 치지 않

는 한 홀컵을 바로 본다는건 무리다. 이 경우 두가지 유형의 성격이 나온다. 하나는 무조건 홀컵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타입, 다른 하나는 전진은 못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며 공을 페어웨이로 안전하게 Lay Up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매우 보수적으로 플레이하는 샷) 하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안전하게 가는 사람... 남은 생각 안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인 사람, 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까지... 골퍼를 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인관관계 형성이나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친구들 모두의 공이 그린에 올라왔다. 타수를 계산한다. "너 몇번에 올라왔어?" "나 3번", "이 새끼 사기치네 너 임마 저기서 헛발질 한번 했잖아?" "아냐 임마" 하면서 자기 타수를 다시 헤아리는 척 한다. "아! 맞아 그랬다. 그럼 4번" "아 새끼! 자기 공이나 잘치지 그건 언제 또 봤네" ㅎㅎ 골퍼를 치다 보면 흔히들 타수를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하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돈이 걸렸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지만 실수를 가장한 고의성 타수 줄이기는 너무도 쉽게 발각되고 만다. 안보는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내기 골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골프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Y 5 FOR \$6.99



내맘대로 골라담기!

Oct. 13th - 26th, 2023

CUSTOMIZE YOUR SNACKING!

Pick 5 NONGSHIM favorites to save!!!

- STEP 1** Grab a snack bag beside the snack bin
스낵빈 옆에 배치된 스낵봉지를 꺼낸다
- STEP 2** Pick 5 NONGSHIM snacks from the snack bin and put them in a snack bag
스낵빈에서 농심스낵 5개를 골라 스낵봉지에 담는다
- STEP 3** Purchase the snack bag at the register
스낵봉지를 들고 캐셔대에서 구매한다

Snack Bag →



- ※ Snack bags provided are only for this event, not for shopping bags.
- ※ You must be able to completely close the snack bag to purchase it.
- ※ You may only pick specified snacks from the snack bin that correspond to this event.

Mix & Match **5 FOR \$6.99**
* For small Nongshim snacks only. (SIZES 1.59 oz ~ 2.82 oz)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8) 부자되기 위한 필수 요소

백만장자 마음의 비밀 (Secrets of the Millionaire Mind: Mastering the Inner Game of Wealth) 저자인 T. Harv Eker는 부자들의 여러 가지 습관과 생각을 소개했다. 그중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삼(3)대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질투한다.

1988 US 오픈에서 박세리 선수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종아리까지 잠기는 물에 들어가서 공을 빼냈다. 눈이 부시도록 흰 박세리 선수의 맨발과 절묘한 위기 탈출, 이 장면은 박 선수의 우승을 결정짓는 퍼트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때부터 박세리 선수를 맨토 삼아 한국의 여성 선수들이 골프 국제대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로 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부자들의 습관, 전략, 그리고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모방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부자들에게 대한 원망과 질투를 품는데, 이것은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멘토와 역할 모델을 찾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학습은 부유한 개인들에게 성공의 초석이다. 부자들은 지식이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확장하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평생 학습에 전념하고 재정 전략과 기회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어야 한다.

주위 친지들의 투자 조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주식 정보보다 재정에 관한 책을 읽어 보는 것이 재정상 훨씬 유익하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필수 도서 3권을 추천한

다.
Burton B. Malkiel의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John C. Bogle의 The little book of Common-Sense Investing

Charles D. Ellis의 Winning the loser's game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투자, 사업, 그리고 자산을 통해 돈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듦으로써 승리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만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데 뛰어나다. 부자는 수동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절상하는 주식, 사업,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투자와 자산의 힘을 활용하지 않고 그들의 돈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한다.

부자들은 순자산 증가에 집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근로소득에만 집중한다. 순자산은 부자들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의 중요성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근로소득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결론은 노후 자금, 아이들 학자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주식투자로 얻는 이익금이 '왜 불로소득인가?' 여기서 받는 수익금은 내가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이익금이다. 내가 투자한 자금은 매우 적지만 이러한 돈이 모여서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은 연구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을 창출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높은 수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입은 정직하게 창출된 이익금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삼(3)대 요소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實(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장한다) 외에도 수많은 정인들에게(과) 색공/색사를 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모 사도왕후와 함께 정변을 일으켜 제25대 진지왕을 퇴위시키고, 죽은 동륜태자의 장남 김백정을 진평왕으로 옹립하기도 하였다. 동륜은 진흥왕의 장남이고, 진지왕 금륜은 차남이다.

먼저 미실의 가계를 보면, 부모는 미진부와 묘도이다. 미진부는 2세 풍월주로 51년 거칠부 등 7명의 장군들과 함께 북방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그의 작위가 각간角干(1등급)에 까지 올랐다. 미진부의 부모는 아시공과 삼엽공주이다. 아시공의 부모는 선모와 보혜이다. 미실의 조모 삼엽공주의 부모는 제23대 법흥왕과 후궁 벽화이다 .45)

미실의 어머니는 묘도부인인데, 묘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영실의 부모는 수지공과 보현공주이다. 수지의 아버지는 등흥공이고, 보현공주의 부모는 지증왕과 연제왕후이다. 즉 보현공주는 법흥왕의 누이이다.

옥진의 부모는 1세 풍월주위화랑과 오도부인이다. 위화랑의 부모는 섬신공과 벽아부인이다. 오도는 법흥왕의 왕후 보도와 동복이부자매지간이며, 부모는 중릉 묘심과 선혜후(비처왕의 왕후)이다. 묘심과 선혜후를 삼국유사에 실린 사금갑조(기이 제1)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다.45)

45) 벽화는 500년 제21대 비처왕의 후궁으로 궁궐에 와서 아들 산종을 낳았다. 하지만

동년 비처왕이 죽고(죽임을 당하고?) 지증왕이 즉위하자, 태자 원종(법흥왕)이 벽화를 차지하였다. 벽화는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499년 무렵 어느날, 비처왕이 변방 날이군(현 경북 영주)으로 순시를 갔다. 그곳의 파로가 '진상품' 을 올렸는데, 달린 보자기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파로의 딸 벽화였다. 그 후 비처왕은 그녀를 못잊어 변복을 하고 몇번이나 왕래하다가, 500년 어느날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

45) 사금갑射琴匣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488년(소지왕10년) 정월 보름, 왕이 천천정天泉亭으로 행차를 하는데, 쥐가 사람의 말로 까마귀를 따라가라 하여, 왕은 기사騎士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기사는 도중에 돼지 싸움 구경을 하다가 까마귀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다.

이때 못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나와 봉투를 주기에 받아 보니, 길봉에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열어 보면 한 사람이 죽을 것" 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기사가 왕에게 봉투를 바쳤다. 왕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열어 보지 않으려 했으나, 일관日官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임금이니 열어 보셔야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이 열어 보니 "거문고갑을

쏘리射琴匣" 고 적혀 있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이 거문고갑을 쏘았더니, 그 안에는 왕비와 정을 통하던 중릉이 있었다. 그 중은 왕을 해치려고 숨어 있었다. 왕은 중과 왕비를 함께 처형하였다.

이러한 일로 매년 정월 상해일上亥日, 상자일上子日, 상오일上戊日에는 모든 일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정월 보름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까마귀에게 공양하는 풍속이 생겼으며, 그 뜻을 서출지라부르게 되었다.)

화랑세기에는 중 묘심이 선혜후와의 사통이 발각되어 주살당했고 선혜후는 사당의 제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설에도 "소지왕이 두 명을 죽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풍속과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뒷부분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인(김대문)이 쓴 '신라의 역사' 와 고려인(일연)이 쓴 '신라의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OCT. 12th - OCT. 19th, 2023



Cooked Shrimp

통통배 쿡새우
1+1 기획세트



\$9.99

100-200's
1 LB + 1 LB/PKG
~~REG. \$21.98~~



Chalhoddeok 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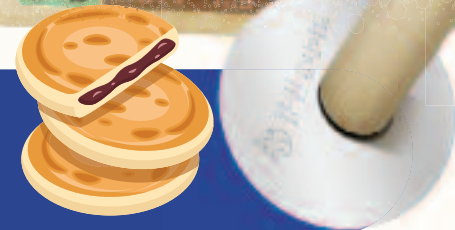
큐원 찰호떡믹스

\$6.99

28.2 OZ/PKG
~~REG. \$9.99~~



호떡누르개 **무료 증정!** FREE HODDEOK PRESSING TOOL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집 용자 받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야 할 점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생각도 못했던 내야 할 비용이 있다면 결코 행복한 순간만은 아닐 것이다. 혹시나 집 가격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어느 곳에 집을 사든, 집 문서를 옮기는 일이나 집을 파는 일도 다 돈이 든다.

이 모든 비용을 우리는 “클로징 비용 (Closing Cost)” 라고 부른다.

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용자 에이전트와 일을 해야 하는데 용자 에이전트가 예상되는 클

로징 비용 (Estimated Closing Cost)을 써서 미리 알려줄 수 있다.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The process - 대출기관 (Lenders) 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모기지대출 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한 모든 서류가 접수 되면 3일 안에 예상 비용을 알려 줘야 한다. 이 서류에는 모기지 이율, 월 상환금 (monthly payment) 액수, 그리고 클로징 비용 (closing cost)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도 다운 페이먼트를 모으고 계시다면 그

액수에 2% 에서 6% 정도를 더 모으는 걸로 목표를 세우면 좋다.

The breakdown - 구매자가 집을 사기 위해 내야 하는 항목을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다. 모기지 관련비용 (Lender fees)과 집관련 비용 (Homeowner costs)이다. 대출기관 수수료 (Lender fee)에는 법률 (legal), 신청수수료 (application), 대출 처리수수료 (processing), 계약심사수수료 (underwriting) 그리고 타이틀 수수료 (title fees). 집관련 비용 (Homeowner costs)에는 어프레이절 (appraisals), 주택 보험 (homeowner's insurance), 보유세 및 타이틀 수수료 (property taxes and title fees). 제일 비싼 비용은 파시는 분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이다.

오퍼가 받아지고 구매자가 모기지 사전승인 (pre approval)이 되었으며 서류 (documents)를 다 보냈다면 대출기관의 (lender)의 CD (Closing disclosure)에 이 모든 사항이 들어 있다.

Don't skip the fine print - 우리 모두 빨리 키를 받고 이사를 하고 싶지만 무슨 서류이든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이 좋다.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ing a check - 사실 정확히 내야 할 액수는 클로징 날짜가 되어 봐야 확실히 안다. 그래서 클로징 테이블에 바이어에게 개인체크 (personal check)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property tax (보유세) 조정 액수 등 여러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What to remember - 집을 현찰로 사든 용자를 해서 사든 항상 클로징 비용 (closing costs)가 있다. 이 비용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내야 클로징이 된다. 집 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집값에 2% 에서 6%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0월 15일 - 10월 2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한 단계 발전하게</p> <p>● 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 애정: 기회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소띠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p> <p>● 운수: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범띠 더 힘껏 노력해야</p> <p>● 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토끼띠 욕식을 가릴 줄 알아야</p> <p>● 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욕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용띠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p> <p>● 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에 잘 되겠습니다. ● 애정: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뱀띠 해결의 실마리를</p> <p>● 운수: 무엇이든 시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 금전: 말이 오가던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말띠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p> <p>● 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 금전: 곳곳에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더 가깝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양띠 미리 낮춰서 바라면</p> <p>● 운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봄을 찾으려고 짐신이 달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 가지에 봄이 있는 격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5, 20일 길일. 19, 21일 주의.</p>	<p>원숭이띠 지혜롭게 잘 피해야</p> <p>● 운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세요. ●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닭띠 무엇보다도 솔직해야</p> <p>●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연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이룰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어지지 마세요.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모수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18일 길일. 19, 21일 주의.</p>	<p>개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p> <p>● 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울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7일 길일. 16, 21일 주의.</p>	<p>돼지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p> <p>● 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거나 결과는 좋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단 매사에 신중을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20일 길일. 17, 21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나영석 PD "콩콩팔팔은 힘 뻗 슴슴한 맛... 밥친구 삼아주시길"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출연진 4명을 찍으려면 보통 촬영장에는 스태프가 적어도 30명 정도 있어요. 저희는 현장에 출연진 4명, 작가, 감독 4명 해서 총 8명이었습니다."

나영석 PD가 새 예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이하 '콩콩팔팔')으로 돌아온다. '또 시골?', '또 농사?', '또 요리?'라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 나 PD는 "이번에는 촬영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어나호텔에서 열린 tvN '콩콩팔팔' 제작발표회에서 나 PD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웃어 보였다.

'콩콩팔팔'은 친한 친구들끼리 농촌에서 작은 밭을 일구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유쾌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감기방이 출연한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은 기획 후 출연진을 섭외하기 마련이지만, '콩콩팔팔'은 섭외가 먼저였다고 한다.

나 PD는 "이광수씨가 친한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램해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해왔다"며 "네 분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오랜 기간 기획하다가 콘셉트를 농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시세끼' 등 농사짓는 테마의 프로그램을 전에도 해본 적 있지만,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농사도 음식도 아니었다. 출연진의 케미(호흡)를 어떻게 가장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고민 끝에 나 PD는 촬영 스태프 수를 대폭 줄였다.

그는 "이들이 일구는 밭이 한 500평 정도



도 되는데,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다. 중간에는 괜한 짓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머릿속에 갖고 있던 테마는 흠비도 오였어요. 촬영 인원을 축소하고 나니 더 편안하고, 무겁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동네 분들과도 스스럼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출연진의 케미도 더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나 PD는 '콩콩팔팔'을 "힘을 뻗 슴슴한 맛의 프로그램"이라며 "밥친구"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예능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콩콩팔팔'을 통해 첫 예능 고정 출연에 도전하는 김우빈은 "처음이라서 긴장도 됐고,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꼈다"며 "마음 같아서는 시즌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금 막내'로 활약했다는 도경수는 "형들과는 자주 만나서 소꿉하고, 식사하는 친한 사이인데 평소의 모습이 똑같이 담긴 것 같다. 너무 편하고 재밌었다"고 돌아봤다.

13일 오후 8시 40분 첫 방송.

블랙핑크 제니, 솔로곡 '유 & 미' 재즈 버전 라이브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솔로곡 '유 & 미'(You & Me) 재즈 버전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샤넬 패션쇼 무대에 흐른 '유 & 미' 재즈편곡버전을 제니가 라이브로 선보인 것이다.

제니는 신비로운 보름달을 배경으로 흡인력 있는 눈빛과 풍부한 감정을 드러냈다.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 위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자랑했다.

'유 & 미'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전 세계 60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이 곡의 퍼포먼스 비디오는 유튜브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도 차지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 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 24-27)

뉴욕에 와 공부를 하며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세월이 참 빠르다.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 놓고 세 아이를 생각하며 앞이 캄캄하던 그때가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니 그래도 참 잘 견뎌왔구나 싶은 마음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또한 세 아이가 엄마를 늘 격려하고 응원해주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엄마를 홀로 뉴욕에 보내 놓고 엄마가 잘 지낼 것이라는 가족 간의 믿음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아빠가 엄마를 늘 믿어주고 살았던 것처럼 딸

이다. “아빠와 엄마는 늘 친구처럼 사이 좋게 지냈어!!” 아빠를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에게 건네 준 세 아이들의 말이였다. 어쩌면 이 말이 나를 오늘까지 당당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탱하게 해준 버팀목 같은 말이였는지도 모른다. 여행을 좋아했던 엄마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며 엄마의 후원자로 있던 아빠를 봐 왔을 세 아이들이 혹여 우리 아빠만 고생했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던 마음이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그러나 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다정했던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늘 친구처럼 잘 살았다는 인정 또는 평가에 마음이 놓였다. 세 아이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나 또한 신학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상담학 박사과정을 봄학기 와 가을학기 두 번째 학기를 듣고 있다. 아직도 3여년 정도의 먼 길이지만, 공부가 재미 있다. 심리 분야와 정신분석 분야는 내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공부라서 재미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읽어야 할 책들의 분량이 만만치 않고 과제물들도 적지 않다. 기도하며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중이다. 세상 나이에 순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 않은가. 이렇듯 뉴욕에 와서 신학공부를 하며 사역자의 길에서 더 많은 생각들과 마주한다. 사역자의 길에서 세상을 둘러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다.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몇몇의 성도들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양들을 이끌어 가는 몇 목회자들 그 외의 몇 전도사나 장로들 그리고 권사들과 집사들의 행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참 가관이 다 싶을 때가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들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실천으로 옮기며 사는 분들의 올곧지 않은 행실에 실망이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이라면 부부 간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은가.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가정 밖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이 서로 사랑의 말과 행동 그리고 존중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삶이다. 이처럼 믿음대로 살 때로 사는 불일치의 신앙관이라면 누가 보아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한 진실이 빠진 가짜의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비바람과 폭풍우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진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부이고 부모 자식이고 가정이지 않겠는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불안과 불만 부모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 보다도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 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오래 되었다는 것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작년 가을인가 보다. 이 지면을 통해 질문을 내놓은 적이 있다. 제목은 느티나무와 팽나무라 했다. 질문 끝부분에 우리집 마당 병든 나무 이야기도 슬쩍 밀어 넣었다. 나무는 고사枯死지경에 이르렀고 곧 쓰러질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나무는 다리도 꺾곤할 테고 비와 눈바람에 지쳤을 수도 있다. 거의 고목枯木이 되었다는 말인데,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서있었다. 과연 몇해던가. 나무는 살아서있던 동안 비를 맞았을 것이고, 눈을 뒤집어 썼을 것이며, 바람을 흘려 보내기도 했을 터. 햇빛을 반가워했고, 가뭄에 목마름을 견뎌 내기도 했을 게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남은 가지는 반백半白에 반수대머리 이지만, 몇 줄기 푸른 잎은 여전히 붉게 변해갔던 거다. 그렇다고 풍성하진 않았는데,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것들은 아름다운 걸까? 무엇이든 오래된 것 앞에선 경외감과 엄숙함이 느껴지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박노해 시인이다. 그의 시 중 한줄이다. ... 시간을 견뎌낸 것들은 빛나는 얼굴이 살아난다 오랜 시간을 순명하며 살아나온 것

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남아진 것 남아짐으로 꾸준히 새로워지는 것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박노해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중에서') 나무를 자르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를 불렀고, 인부들과 특수장비가 동원되었다. 작업은 속전속결에 순조로웠다. 그러나 나아 못내 아쉽고 섭섭하며 짠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앓던 이 뼈는 것처럼 시원한 건 아니었던 거다. 그루터기는 남기기로 했다. 들어 난 나이에 테와 무늬를 보고 싶었던 거다. 상당한 나

이테 줄이 나타날 것인데, 과연 몇줄이나 될까 궁금했던 거다. 또한 나무 무늬는 검소할 텐데, 두고 두고 들여다 볼 요량이었던 거다. 밑동 그루터기엔 화분이라도 올려 놓을 것이다. 조화吊花는 아니지만, 나무에 대한 애석함과 감사의 표현이라 우긴다. 아내가 허락할 지 그건 모르겠다. 그동안 감사했네. 덕분에 보기도 좋았고, 선물하던 그들은 시원했다네. 오래된 나무는 아름답다.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이사야 65:22, 현대인의 성경)

2023 교회협의회 가을부흥회

호세아 10: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흙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BREAK UP UNPLOWED GROUND

묵은 땅을 기경하라

김성택 목사



고려대학교/대학원 졸업
총회신학대학원 졸업(M.Div)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TH.M(신약전공)
Boston Univ. School of Theology (TH.D 수료)
51대 NCKPC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 전국총회) 총회장
현, 클리블랜드 한인 중앙장로교회 담임 (2005-현재)

10월 27(금)-28(토) 오후 7시30분

10월 29일(일) 오후 6시30분

성요한 UMC,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고려대목원합동교회, 다사영사립교회, 새유아안아침교회, 뉴턴프러빌교회, 뉴턴프러빌교회, 북두아일랜드교회, 북두아일랜드계일한인교회, 북두아일랜드중앙한인교회, 무지개연합감리교회, 밀양교회, 보스턴근거리장로교회, 보스턴중앙교회, 보스턴감리교회, 보스턴 크라이슬교회, 보스턴뉴타운교회, 보스턴 더임교회, 보스턴서부장로교회, 보스턴성결교회, 보스턴 한울교회, 보스턴 시골교회, 보스턴재일교회, 보스턴주님의교회, 보스턴중앙교회, 보스턴불교교회, 보스턴한인교회, 보스턴한인연합교회, 북부보스턴연합감리교회, 비전교회, 새빛교회, 생명의길장로교회, 성로교회, 신원합동교회, 순복음보스톤교회, 서온천인연합감리교회, 실로암 교회, 라이코스 교회, 안디옥연합감리교회, 열방교회,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워싱턴교회, 웰슬리한인교회, 은혜진리교회, 영마누엘연합교회, 영운교회, 지구촌방주교회, 케임브리지영실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킹지영성 경교회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달 · 명치 통증 지속... 갑자기 당뇨 악화된다면 췌장암일 수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5년 생존율 15%, 주변 장기·림프절로 쉽게 전이, 초기 증상 없고 발병 원인 불명확하여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무서운 질병인 췌장암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도 재혁교수와 간담췌외과 이승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15.2%(2016~2020년 암 발생자)에 불과한 무서운 암이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발생률은 3.4%로 전체 암 중 여덟 번째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연구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없는 데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최근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가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도재혁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5일 “5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췌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함께 췌장암이 발견될 당시 약 50~60%의 환자에서 당뇨병이 동반되거나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당뇨병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는 “당뇨병에 의해 췌장암이 발생한 건지, 췌

장암에 의해 당뇨병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되지 않으면 췌장암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췌장은 명치 끝과 배꼽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으로 각종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해 음식을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뇨병이어서 당뇨병과 췌장암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뇨 외 위험 인자는 흡연, 술, 비만 등이다. 흡연을 하면 췌장암 위험도가 2~5배 증가한다. 췌장암의 3분의 1가량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흡연자의 췌장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1.7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담배를 끊더라도 10년 이상이 지나야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만큼 낮아진다고 한다. 비만이어도 췌장암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졌으나,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령의 나이도 위험 요인이다. 췌장암의 90% 이상은 55세 이상에서 발생한다. 췌장암 발생 평균 나이는 65세로, 3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50세 이하 환자도 많지 않다. 또한 직계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발생 위험이 9배 증가하며, 3명이 있으면 32배로 올라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 요인을 갖춘 고위험군에게 복부 CT 검진을 권한다.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 증상은 당

뇨병, 복통, 소화불량, 체중 감소, 소화장애, 황달 등이다. 췌장암 환자의 약 90%에서 명치 통증이 나타나지만 초기 증상이 애매해 진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환자가 많다. 뚜렷한 이유 없는 체중 감소도 흔한 증상이다. 대개는 짧은 기간 내에 체중의 10% 이상이 줄어든다.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긴 환자는 대부분 황달 증상을 보인다.

눈에 띄는 황달 증상으로 췌장암을 일찍 발견했다면 그나마 다행스런 경우다.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긴 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시간이 꽤 지나야 발견되는 일이 많다. 환자의 70~80%는 진단됐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수술이 가능한 1기(암 세포가 췌장에만 있는 상태)나 2기(주위 조직이나 림프절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 환자는 전체 췌장암 환자의 30%에 그친다.

다만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승은 중앙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고 알려진 췌장암이지만, 암이 전이되지 않고 크기 1cm 이하일 때 수술하면 60% 이상의 5년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생존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꾸려야 한다. 금연, 절주는 필수다. 윤교수는 “감귤류, 통곡 식품, 강황이 풍부한 음식, 엽산이 풍부한 채소, 튀기지 않은 생선 등을 섭취하고 가공육이나 너무 익힌 고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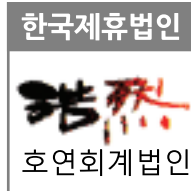
췌장암 예방법

- 금연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정도 발생 위험률이 증가)
- 과일, 채소, 식이섬유소 등의 섭취를 늘린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 섭취를 피한다.
- 비만 관리를 한다.
- 과도한 당분 섭취와 음주를 피한다.
- 화학물질(살충제,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등)에 많이 노출되는 작업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화학물질 노출을 최대한 피한다.
-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검진한다.

“황달 · 명치 통증 지속... 갑자기 당뇨 악화된다면 췌장암일 수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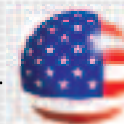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전라남도 나주시 농수산식품 해외판촉전

NAJU MARKETPLACE FLASH SALE

Brought to you from the idyllic seaside province of Naju, Jeollanam-do. Enjoy Hometown delights from sea to shore, on sale for a limited time. Only at H Mart.

October 13th - 19th, 2023 at H Mart Burlington

NONGHYUP
The Best Rice
나주 농협
으뜸쌀
22 LB



\$29.99

DH FOOD
Glutinous Rice
Nuroungji
가마솥
간편찜쌀
누룽지



\$4.99 2.11 OZ X
5 EA/PKG

DH FOOD
Glutinous Rice
Nuroungji
가마솥
간편찜쌀
누룽지 (컵)



\$1.99 2.11 OZ

Brown Rice
Noodles
올작 현미
쌀국수
10.58 OZ



\$3.99

Frozen Sliced Skate
영산홍가 홍어회



\$4.99 3.53 OZ

Seasoned
Sliced
Raw Skate
홍어회
무침
4.23 OZ



\$3.99

Vegetable
Seafood
Soup Stock
순꽃 야채해물
다시팩
2.82 OZ



\$5.99

Suncheon Bay
Salt
순꽃
순천만
천일염
2.2 LB



\$5.99

Sweet Rice
Drink
정담소담
찜쌀식혜
1L



\$4.99

Sweet
Rice Drink
전통식혜
1L



\$4.99

Sweet
Rice Drink
호박/복분자
식혜
RASPBERRY/
SWEET PUMPKIN
1L



\$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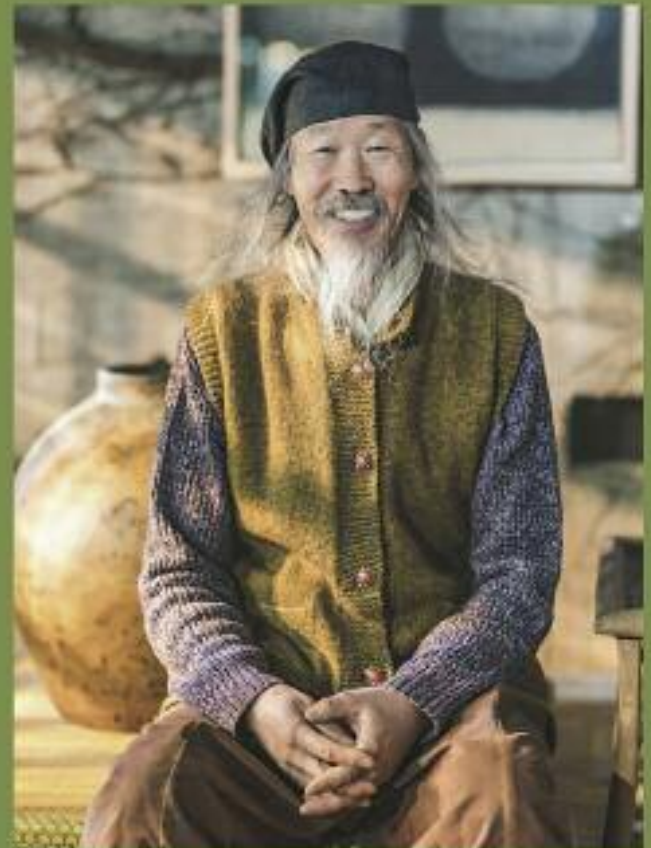
제 10회 한미예술협회 정기전

종이 뜨기
씨앗 뿌리기
환경 보살피기



한지

이종국 작가
초대전



10월 7일-22일

Reception:
Saturday October 7, 3-5pm

Artist Talk:
Thursday, October 5, 7pm

Lexington Arts and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상세 정보
kcsboston.org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